

| 5월31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636.52 | ↑ 코스닥 | 839.98 |
| | (+1.08) | | (+7.99) |
| ↑ 금리 (미국 9년) | 3.452 | ↑ 환율 (원·달러) | 1384.50 |
| | (+0.012) | | (+5.10) |

바이오시밀러 새 역사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04



비금융 자산 쏠림... 종부세 폐지 등 정책 재검토 필요

메트로 창간 22주년 **전환기 한국경제, 혁신에서 길을 찾자**

<下> 경제 정체성 찾아라

韓가계금융 43% 현금·예금
보험·연금 등에도 30% 몰려
美는 금융상품에 58% 투자
종부세, 매매가 상승 부작용
재산세로 보유세 단일화 등
자산 이동 위한 전환점 필요

4~5세인 아이와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아이는 회전목마를 탈 때 각각 다른 행동을 보인다. 4~5세의 아이들은 회전목마에서 기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부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반면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아이는 들뜬 기분을 오히려 숨기려 한다. 회전목마를 타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 갈등하는 것.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회전목마 실험'을 통해 정체성과 규범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전목마와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가치, 요구되는 기대 수준이 교차되며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업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일정 부문 인센티브를

부과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쏠림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외려 쏠림이 더 심해진 경우다. 이용자들이 바라보는 대상의 가치와 요구되는 기대 수준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43.4%가 현금·예금이었고, 나머지는 보험·연금(30.4%), 금융투자상품(25.4%)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이 13.2%, 금융투자상품이 58%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주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64.4%)에 쏠려 있다. 미국 비금융자산(28.5%), 일본 비금융자산(37%) 비중을 뛰어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비금융 자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자산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집값 낮추려다 외려 높은 '종부세'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을 지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무리해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주담대가 변동금리일 경우 오를 수 있는 금리를 미리 적용해 대출한도를 낮췄다.

다만 아직까지 구매자들의 주택구매 욕구는 낮추더라도 집값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매도자들의 기대를 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늘어난 세금 만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소재한 고가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로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비금융 자산과 금융자산 비중' 이미지.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 4000만원) 초과, 부부 공동 명의로는 18억원(시세 약 26억원) 초과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매우려고 했다. 종부세가 우리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보유세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재산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별 과세라 한 명이 몇 채의 주택을 갖느냐에 따라 많게는 최저 세율(0.5%)의 10배인 5%의 세율을 적용받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보유 부동산별 과세하는 재산세 방식으로 통일하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0.1~0.4%)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투기하는 이들을 선별해 집값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푸디노베이션 포럼'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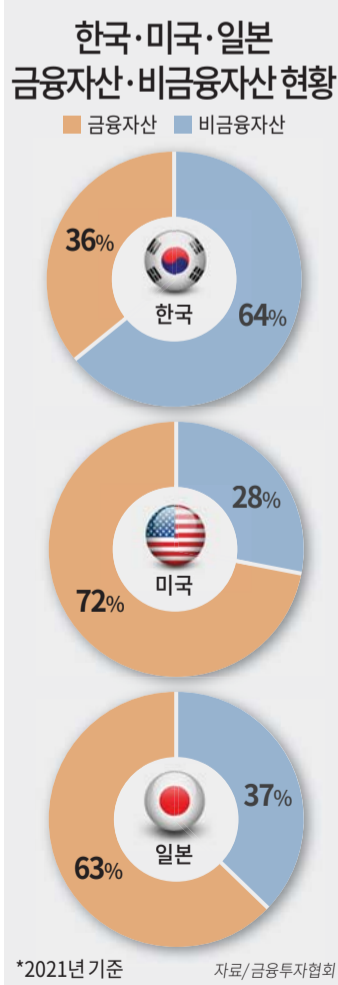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8%가 인간이 키우는 가축에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5% 가량은 식량 생산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각종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활동이 돌고돌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된 것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식품 관련 유관산업에 변혁을 주기 위해 '2024 푸디노베이션포럼'의 주제를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로 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행사개요
- 행사명 : 2024 푸디노베이션 포럼
- 주제 :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푸드테크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14:00~18:00 |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최 :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등록 110,000원.
- 문의 : 2024 푸디노베이션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2면에 계속>



또 다시 '킹달러'... 금리 불안감에 당분간 지속

원·달러 환율 5주 만에 최고 고물가 우려 금리인하 지연 전문가들 "인내심 유지해야"

불투명한 금리 전망과 미국채 금리 상승에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목전에 뒀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4월 개인 소비자지출(PCE)이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환율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원 오른 달러당 13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기록한 환율과 같은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5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4월 개인소비지출(PC E)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기존 시장 예측을 웃돌아 금리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달러 가치를 끌어 올렸다고 관측했다.

앞서 지난달 말 달러 가치는 PCE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불안에 힘입어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일 평균

0.39%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4일 연속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달 31일 발표된 4월 PCE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을 기록해 기존 예측치에 부합했다.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율도 0.3%를 기록해 지난 3월 인플레이션율인 0.4%보다 둔화했다.

시장의 불안감이 잦아들면서 원·달러 환율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 포트레이드의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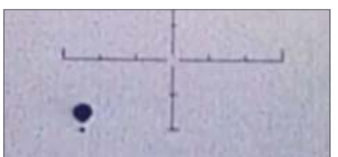
리스토퍼 라킨 투자부문 이사는 "PCE 가격지수는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그다지 보여주지 않았지만, 반등 역시 없었다"며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의 우호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며 "첫 금리인하가 9월보다 빠를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6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테러 예행 연습?"... 잇따른 北오물풍선에 누리꾼 '불안' /사진 뉴스스
- ▲ 대통령실, 북 '오물 풍선' 살포에 NSC 상임위원회 소집

- ▲ 홍준표 "여론조사 무용론 제기... 응답률 15% 이하 발표 금지해야"
- ▲ "디지털 기술로 주민 불편 해소"...10개 선정 과제에 14억 지원



- ▲ 조국혁신당 '채 상병 특검 재발의' 서명운동 /사진 뉴스스
- ▲ 여, 김정숙 여사 논란에 "타지마할 식도락 여행... 문 진실 밝혀야"